

장흥~광양간 고속도로 등 전남서 수천억 공사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하나

대주단 담보 요구에 긍정 검토

광주·전남지역에서 수천억원대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철회할지 주목된다. 채권금융회사들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담보 제공 등에 대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장흥~광양간 고속도로 등 광주·전남 대형사업들의 차질 여부가 결정되거나 때문이다.

13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전날 오후부터 삼부토건과 재협상에 나섰다.

대주단이 서울 강남 소재 라마다르네스호텔을 담보로 요구한 데 대해

삼부토건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전날 저녁부터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대해 다시 논의에 착수했다”며 “여러 조건을 놓고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3~4일 논의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된다”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 법정관리 철회와 정상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단과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뤄지면 삼부토건은 호텔을 담보로 내놓

건과 관련해 “삼부토건이 채권단과 협의하는 도중 법정관리로 간 것 같다”며 “법정관리 전) 채권단과 좋은 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절반씩 인수약정을 맺은 45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의 만기를 자동 연장해달라고 은행들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금융회사들이 삼부토건에 담보를 요구한 데 이어 사업 파트너인 동양건설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해줄 것을 요구하자 삼부토건이 전날 오후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삼부토건은 기업어음(CP) 일부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주단과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뤄지면 삼부토건은 호텔을 담보로 내놓

고 법정관리를 철회하는 대신 대주단의 자금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정상화 등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은 전남 지역에서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 건설공사 4·5·7·8공구와 전라선철도복선화 신풍~덕양 관로이설 공사, 여수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F1 경주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녹동항 정비공사, 전라선 신풍~여천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 등 대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또 도급순위 35위인 동양건설은 광주 백운1구 아파트 건설공사, 국동항 대기능장 건설공사, 완도 금읍읍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다. /본지정기자 jwpark@.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11 전역예정 간부 취업박람회'에서 전역예정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일자리는 어디에...

광주·전남 고용시장 악화...실업률 상승

3월중 취업자수 65만명...전년동기비 2.4%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의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1년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3월 취업자수는 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6000명(-2.4%)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변화가 없었으며 실업률은 4.1%로 0.1%P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67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2.2%) 감소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7.4%로 2.3%P 하락했다. 전남지역의 3월 취업자 수는 8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1.4%)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도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22.6%)이나 증가했다. 실업률도 2.3%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4%P 상승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 같은 달보다 0.8%P 하락했고 고용률은 61.1%로 1.0%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또 발목잡은 PF...건설업계 위기 고조

100위권 중 28곳이 워크아웃·법정관리

“금융권 지나치게 돈줄친다” 볼멘소리도

건설경기 침체의 잠기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발목을 잡혀 쓰러지는 건설사들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서 수십만 명장을 유지한 전통의 중견업체까지 속속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의 수렁으로 빠져들자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를 놓고 뒷담이 무성하다.

건설업계에서는 PF 대출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지나치게 돈줄을 쳐는 바람에 멀쩡한 회사까지 위기에

불리고 있다는 불만을 털어놓는 반면, 몇몇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신청 직전 대규모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견업체·그룹계열사·가리지 않고 ‘좌초’ =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모두 28개사에 이른다. 여기에 동양건설산업(시공능력평가 35위)까지 이날 만

기가 도래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 추가로 이리스트에 합류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설사 구조조정이 단행됐지만 이후에도 자금난을 겪지 못하고 무너지는 회사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의 도미노 ‘병원 행’은 자력 회생이 기대했던 동일 토건(49위)이 지난해 말 자진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월드건설(73위)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수원에 본사 를 둔 중소 건설사인 대림건설(194

위)은 비슷한 시기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어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두 차례나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그룹의 자금 지원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 회사는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PF 돈줄까지 막혀... = 건설사들의 도미노 좌초는 일차적으로 주택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때문에 분석된다. 최근 수년 동안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순환이 막혀버리고 신규 사업 착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가 플랜트, 토목, 건축, 주택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반면 중견업체들은 주택사업의 비중이 커 시장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삼성, 협력사에 6100억 지원

삼성이 5200여 협력업체에 6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주기를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차 및 2차 협력업체 간 동반성장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1차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동반성

장 협약’ 체결식을 했다. 협약은 삼성 9개 계열사가 1차 협력사 3021개와 맺고 1차 협력사 다시 2차 협력사 2187개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삼성은 2차 협력사와의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1차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0타경 28633	1	광산구 월계동 757-8 일신아파트 104동 10층 1007호 92,205㎡ [미지원임대기]	아파트 110,000,000 원 110,000,000 원	최저매각가격에 대금 지급일로부터 미지원임대기
2010타경 39268	1	북구 우산동 4-1 우산동우미프라자아파트 20층 201호 109.59㎡	아파트 56,000,000 원 56,000,000 원	
2010타경 42677	1	동구 계림동 100-1 아파트 109동 2층 201호 76.70㎡	아파트 200,000,000 원 200,000,000 원	
2010타경 43816	1	광산구 월곡동 538-1 106동 9층 908호 84.51㎡	아파트 83,000,000 원 83,000,000 원	
2010타경 44123	1	북구 운암동 103-1 일신아파트 103동 8층 813호 59.82㎡	아파트 56,000,000 원 56,000,000 원	
2010타경 44307	1	광산구 월계동 764-4 청단단산1차아파트 15동 2층 202호 59.97㎡	아파트 67,000,000 원 차입인 있음 67,000,00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960	1	동구 원림동 567-1 리인광명아파트 302동 14층 1404호 83.31㎡	아파트 130,000,000 원 130,000,000 원	
2011타경 1246	1	서구 경정동 102-3 환성아파트 303동 6층 6호 94호 59.97㎡	아파트 75,000,000 원 차입인 있음 75,000,00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1512	1	북구 풍정동 1074-8 현대아파트 101동 8층 803호 84.89㎡	아파트 79,000,000 원 79,000,000 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2010타경 42844	1	서구 화정동 70-82 102㎡ [공유자금회계재정] 2층 25호 51.4㎡	단독주택 47,118.920 원 47,118.920 원	일괄매각, 제시외 임대포함, 공유자금회계재정
2010타경 43502	1	동구 풍정동 59-24 126.3㎡	단독주택 118,356,400 원 118,356,400 원	일괄매각, 임차인 있음
2010타경 43961	1	동구 풍정동 869-13 142㎡ [현황대지]	단독주택 107,597,600 원 107,597,600 원	일괄매각, 임차인 있음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0타경 44765	1	서구 풍정동 513-1 1층 504호 19.75㎡ [최선순위설정일자보다 전입일자遲る 임차인 (신정재권) 있음]	다세대 21,500,000 원 21,500,000 원	로지별도등기 있음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41582	1	장성군 서산 모암리 산59 1920㎡ [현황도로 및 일야]	임야 139,708,400 원 139,708,400 원	
	1	동구 산59-4 2412㎡ [분묘소재]	임야 139,708,400 원 139,708,400 원	
	1	동구 산59-5 660㎡ [분묘소재]	임야 139,708,400 원 139,708,400 원	
	1	동구 산59-2 48773㎡ [분묘소재]	임야 139,708,400 원 139,708,400 원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기타】				
2010타경 41087	1	광산구 흥정동 628-6 2층 201호 191.67㎡ [물건번호 1호, 흥정해설 2층 내건축공사대금증정] 1호 102,850,000 원 102,850,000 원	일괄매각, 임차인 있음, 채권으로 부터 유치권 배제 청탁 서재출원	농지지적증명을 제출해온 경우는 농지지적증명을 제출해온 경우는 농지지적증명을 제출